제4강 불교 모두의 공통된 기반

(1교시)J_stJo01_030915_01

◎ 중도(中道)의 세 구분

1. 고락 중도 (수행의 문제)

붓다는 고행주의(asceticism)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苦와 樂의 그 중간에서 수행, 깨달음을 얻는다.

2. 단상 중도 (실재/윤회의 문제)

붓다는 우파니샤드의 범아일여(梵我一如)와 단멸론의 中道에서 앞의 것과 뒤의 것의 연관성을 연기(緣起)로 설명한다. 붓다가 말하는 연기는 공간적 계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계기**, 그것도 종교적인 시간의 계기에 의한 것이다. 동아시아적인 불교의 전통에서 연기는 공간적인 사물들의 인과성으로 이해되기 쉬운데, 초기불교의 그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3. 우연론과 결정론의 중도 (자유의지의 문제)

1) 우연론

우연론에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원인을 두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 일어날 뿐이고 인과 관계는 전혀 없다. 모든 것에 인과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이 없어진다.

2) 결정론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이미 결정되어진 어떤 원인이 현재의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이론. 결정론은 Pre-programed / Pre-determined 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진 대로 움직인다.

붓다의 '중도' -> 자유의지의 문제

붓다는 이 둘 사이의 중도에서,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기도 하면서 현재는 동시에 미래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이 깨달음 속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설 여지가 있다. **분명 결정론적 입장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현재적 존재로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일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 불교 모두의 공통된 기반

◆ 오온(五蘊)

◆ 사성제(四聖諦)

◆ 12연기(十二緣起)

(2교시)J_stJo01_030915_02

◎ 오온(五蘊)이란 무엇인가

色(색), 受(수), 想(상), 行(행), 識(식)

→ 인간 존재를 분석하는 방식이며 이는 곧, 인간의 경험을 분석하는 방식

1. 色(색/rupa, color)

형태가 있는 것, 곧 육체, 물질적 요소(material form)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해당하는 **감각기관 <眼(안), 耳(이), 鼻(비), 舌(설) 身(신)> 에 의해 일어나는 감각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色은 보는 작용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보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인식 이전의 상태에서의 물리적 작용**만을 뜻한다.

色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2. 受(수/feeling)

느낌. 여기서의 느낌은 외부사물과 접촉했을 때 자동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의식작용에 의한 판단으로 결정되어지는 종류의 느낌이 아니라 의식화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느낌에 대한 것이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 즉 생물학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 반응은 **<좋다(樂受) / 나쁘다(苦受) /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不苦 不樂受)>** 하는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로 나타나게 되고, 그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발생하게 된다.

3. 想(상/perception)

이것은 표상(表象/samjna)작용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지각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 지각은 **인지**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行(행/mental formation)

行은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본래 산스크리트어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smaskara 로 그대로 번역하면 '형성'이라는 말이 더 가깝지만 이것은 行이라는 단어로 한역되었다. 이것은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行이라 한역한 것이 적절하다.

5. 識(식/Acts of Consciousness)

이것은 판단, 내지는 요별(了別) 작용이라고 보면 된다. 요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앎과 동시에 그것을 식별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작용들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업**'이다. 색(色)으로부터 식(識)에 이르는 이 흐름은 어떠한 단계나 순서로 이해하기 보다는 거친 것으로부터 섬세한 것, 감지되기 쉬운 것부터 감지되기 어려운 것에 이르는 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이 오온을 통해 '내 경험이 곧 나의 존재'라는 무아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학생 프로토콜>

(1)

제4강 불교 모두의 공통된 기반

철학과 대학원 K 학생

첫째마당: 불교에 공통된 기반-불교 경전

1.다르마(Dharma)

1). Dharma(가르침.法)용어의 의미: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었으나, 첫째 제사를 지낼 종교적 의무와 종교적 권위에 기반한 사회적 제도와 관습이라는 뜻, 그리고, 이를 규정한 법률을 의미하

면서 그것의 정의, 선, 공정 등을 포괄하는 것이며, 인류보편의 도리, 절대적 진리를 뜻한다.
2).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절대불변의 진리로 언급되기도 하면서 붓다자신 또는 가르침(교리)과 존재의 궁극적 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자체라고 한다.
2). 본래의 불교를 재건해 보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E.콘즈는 솔직하게 그의 저서에서 "딱하게도 불교 본래의 가르침이 어떠했던가를 나로서는 모른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기의 가르침들도 붓다의 가르침 속에 포괄된다고 말한다.

2.문헌
1). 경전: 초기부터 경전은 **<다르마(Dharma)>**와 **<비나야(Vinaya)>**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교리를, 후자는 출가집단의 규율을 다루다가 후에 **<비나야>**, **<다르마(혹은 수트라Sutra)>**, **아비다르마**(Abhidharam)로 나누어졌다고 한다. 수트라는 제자 아난다가 기록한 것이나, 수트라 가운데 붓다가 죽은 후 몇세기가 지나서 이루어진 것도 많기에 콘즈는 붓다라는 역사적 인물이 설파하지 않은 경전의 실제 저작자가 누구인가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2). 경전觀: **소승 Hunayana**("저급한 결함이 있는"이란 뜻인데 승려들은 거대한 승원에서 좌선과 번잡한 교리연구에만 몰두하게 되어 교단의 활력은 침체되었다고 한다. **대승불교**는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혁신운동이였고, 새로운 경전을 짓고 역사적 붓다보다 보살이라는 이념형을 내걸어 '출가 제가를 불문한 이타행의 실천'을 강조했다고 한다.
대승은 중국, 한국, 일본, 티벳에 보수적 불교(소승)의 한 **부파인 上座部**(Theravada)는 실론, 버어마, 타이 등 동남아시에 있다고 한다. 상좌부는 대승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옷 세벌, 밥그릇, 하나의 계율을 지키면서 **<팔리(pali)경전>**만을 진정한 붓다의 목소리로 고집한다고 한다. 그러나 팔리 경전이 오래된 문헌이기에 원본(original)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소승Hinayan 분파는 B.C. 480걸쳐 이루어진 대승의 경전들을 부정했다. 그들은 붓다가 죽은 후 바로 소집된 결집(Simgiti)에서 암송되지 않는 것은 정통이 될 수 없다고 말했으나, 대승 Mahayana는(대표적인 문헌**<반야경>**등, 또한 후기경전들도 붓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후기경전의 철학적 정당화를 위해 붓다의 삼신설(三身說)이 도입되어 초기경전들은 붓다의 육신으로 나타난 몸(form-body 色身이, 후기경전은<누리는 몸(enjoyment-body 報身)에 의해 설해졌다는 것이다.
그 외 **<사스트>경전**
<질문> 색신(色身)과 보신(報身)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마무리: **원시불교**(B.C. 5~6C)에서 **부파불교**(붓다 입멸 후 100년간 교단은 화합을 보이다가 불교의 확산과 다른 문화에 적응으로 다양한 부파로 갈라져 A.D. 200~300사이 18부에서 20부로 부부파 나뉨), 그리고 **대승불교**(B.C. 1세기 무렵부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에로의 역사적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이때 원시불교를 초기로 상정하면서도 이를 다시 근본불교와 초기 불교로 나누기

도 하나, 불교 교리는 근 400년간 誦習敎壇에 의해 구비전승되다가 그 정착의 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없으나, A.D. 5~2C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을 보는 불교도의 태도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리(법)에는 역사가 없고 , 변하는 것은 다만 외부적 환경뿐이며, 더욱이 영적, 종교적인 깨달음은 고독하게 스스로의 길을 걸었던 성자와 현인들의 경험은 역사가들의 눈에는 비껴가기 일쑤이며, 익명성이 바로 성스러움에 수반되는 덕성이었다고 한다.

***<참고>현전하는 경전이 있는 모음집**

(1). 팔리 장경:소승부파의 하나인 상좌부의 경전들이 여기에 있다고 함

<소승 경전의 분류> 가.상좌부(팔리어) 나.설일체유부(한역체) 다.대중부

(2). 한역 대장경: 유동적인 성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겪었다고 함

(3). 티벳판 장경: 칸주르(Kanjur)는 108권 혹은 100권으로 된 경전모음으로 승단의 규율과 완전한 지혜 그리고 탄트라(밀교)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함

(4). 결집이나 경전으로 집성되지 않았으나, 많은 양의 산스크리트어 저작이 현존한다고 함

☞콘즈는 앞의 네 가지 표제의 문헌들만을 불교사상의 권위 있는 자료로 인정하고 다루고 있다.

2. 둘째마당: 불교의 공통된 기반 -가르침

1.붓다

1)인간으로 붓다: 붓다를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첫째가 인간(B.C. 560~480)으로서의 붓다이다. 그러나 생존했던 개별체로서 붓다는 종교적 삶에로 관심을 이끌게 하는 전형일 뿐이며 <까달은 사람>붓다는 서로 다른 시대에 자신을 현생 시키는 일종의 원형(原型)이며 개별적 특성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붓다와 같은 영적 완성에 이르려면 보통 세 겁(劫)하고도 조금 걸린다고 한다. 그 세월을 미래의 붓다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덕**을 닦아나간다. 불상의 손가락이 대개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에 이르기 위한 붓다의 오랜 준비를 상징한다고 하며, 전설에 석가가 깨달음을 얻기 직전 세상의 지배자인 마라(Mara 魔群)와 싸웠다고 한다. 재미있는 이야기 같아 이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석가는 마라에게 "나는 여러 생을 거치면서 副를, 그리고 四肢와 생명까지도 헤아릴 수 없이 내던짐으로써 이 땅의 세속적 힘과 영광을 경멸할 수 있었노라, 또 그것을 증거했노라"

하면서 그 증표로 그는 땅을 가르킨다. 그러자 땅의 諸神이 그의 말이 옳다는 듯 지상에서 일어서서는 석가가 보살의 수련과 의무를 완전히 끝마쳤음을 증언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우화에서 콘즈는 영적 진리를 배면에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사탄에 해당하는 마라는 이 세계와 지상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기독교 성경에서 하늘의 천사장이 쫓겨나 마귀가 되어 세상의 임금이 된 것과 내용과 흡사하다. 마라는 또 다시, "<세상 너머에 있어 이 땅과는 영 화해 할 수 없다>는 보살에게는 명상할 땅 한 뙈기의 권리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맞서 보살은 <전생에 치른 수많은 자기희생의 대가로 이 세계 한구석에 대한 권리는 얻었노라>고 응수한다.

2). 영적원리로서 붓다: 영적원리가 두드러진 초첨이 될 때 붓다는 여래(Tathagata 如來)라 불린다고 한다. 三身가운데 <진리의 몸(法身)>이 운위되는 때도 이때라고 하는데, 타타가타의 본래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재구해 볼때 후기의 주석가들은 <그렇게>라라는 뜻의 타타 Tata에 과거분사 아가타(왔다)혹은 가타(갔다)가 합쳐진 뜻으로 이해한다고 한다. 즉 여래는 또 다른 여러 여래가 그러했듯 그렇게 왔던, 혹은 간 사람이며 이는 역사적 붓다가 고립된 저 하나만의 현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앞의 둘 사이 어름에 있는 어떤 것으로 붓다: 빛나는 몸(莊嚴身)은 자연인으로 거닐고 있을 때는 다른 여느 사람과 별반 달라보이지 않으나, 오직 믿음의 눈으로서만 붓다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타의 빛나는 몸은 32개의 초인의 표징으로 특징지워진다고하며, 이는 모든 학파의 공통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불교예술적 차원에서 볼 때 그 형상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불교는 과연 무신론인가

이에 대한 물음에 콘즈는 "만약 우주의 창조주, 인격적 창조주에 대한 무관심이 무신론이라면, 불교는 진정 무신론적"이라고 말하면서 니르바나(Nirvana)는 정녕코 우주창조 따위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으며, 니르바나는 **"신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눈물겹게 빚어낸 세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로 니르바나는 영원하고 참이며, 최고의 실재, 선, 절정, 평화이며, 그러니 그 니르바나의 육화인 붓다도 자연히 우리가 종교적이라 부르는 감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콘즈의 주장이다.
불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신앙적(Bhaktic) 접근과 지적(Gnostic)접근 사이의 긴장이 늘 있어왔으나, 불교에서는 지혜의 통투(通透)를 참된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또한 불교는 초기문헌에서 브라만교의 제신들을 별 이의 없이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각 지방 출신의 승려들이 각각의 지방 신들을 수용했다고 한다. 그러니 "만일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무신론이라면 불교를 무신론적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큰즈는 말한다.

3. 높디높은 네 가지 진리(Dharma 法)-4聖諸

1). 苦(고): 인생을 苦로 보고 **오온(五蘊)**을 붙들려는 모든 노력에 고통이 스며있다는 것이다. 오온(五蘊)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색(色.rupa.color:The Body)-육체와 결부된 것으로 육체의 감각작용이며, 물질적 요소(Matter .Form)이다. 인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형체가 있고 그것은 색깔이 있다고 보았다. 즉 감각기관 眼, 耳, 비, 舌 身을 통한 **물리적 작용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분석보다 인간 경험에 대한 작용으로 본다.**
나). 수(受.vedana:Feelings)-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외부사물과 접촉했을 때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 즉 생물학적이며 이 또한 의식 이전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인간이 받

는 느낌은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느낌 셋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다). 상(廂.samjna. perceptions.) 表象

라). 행(行.samskara-산스크리트어로 '형성'의 의미)은 표상작용 결과

마). 식(識.Acts of Consciousness)-가)~마)의 마지막 판단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오온은 시간적 순서라기보다 거친 것에서 섬세함으로, 감지되기 쉬운 것에서 감지되기 어려운 순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이 모든 밑바탕에는 "업"이 근거가 되어 내 경험이 실상 나의 존재라고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집(執): 고의 기원이자 윤회전변(輪廻轉變)을 몰고 오는 <타는 갈망>이 그 기원.

3)멸(滅): 위의 <괴로움을 멈춤>이라는 즉 執으로부터의 자유

4)도(道):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로 팔정도(八正道)를 지칭한다. 즉 定見(바른 견해), 定思惟(바른 의지), 正言(바른 언행), 正業(바른 행위), 正命(바른 삶의 영위), 正精進(바른 노력), 情念(바른 마음씀씀이), 正定(바른 명상)

<보충강의에 대한 논의*>中道를 지난 시간 좀더 보충한 내용 중에서 부처는 苦樂의 중도를, 斷常의 중도로서 緣起를 마지막으로 우연론과 결정론 사이에서의 중도를 언급함으로써 자유의지의 문제를 개입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고 했다.

이에 부처의 연기와는 달리 화엄종은 시간이 아닌 공간으로 이를 확장시켰는데, 이는 인도적인 사유보다 중국적인 연기사유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필자는 이러한 화엄종의 연기론의 확대가 중국에 들어와 토착화된 사례라고 본다. 그런데, 그러한 토착화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유교의 세계관과 맞닿을 수 있는 접목점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즉 유교의 이상인 修己적 측면이 우선 불교의 정신적 명상을 중시하는 부분과 맞닿을 수 있었고, 유교의 세계관이 "관계"중심적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부처의 연기론이 공간 속에 기인하는 관계로 변화된 것이 자연스러운 추이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상이나 철학 아니 여러 논의가 있음에 불구하고 불교를 종교라고까지 확대시켜서 고찰했을 때 우리는 사상이나 종교가 새로운 "가족공동체"(비트겐 슈타인이 말한" 언어는 가족공동체이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언어와 철학과 종교는 서로 보완관계임과 동시에 변증법적인 자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논의.1> 오온(五蘊)을 통한 과정이 '業'에 따라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는 동물과 사람이라는 종(種)에만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기저(基底)가 되는 '業'이 다르기에 유(類)에 해당하는 개별적 인간, 개별적 동물에게 그 오온(五蘊)의 작용에도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색(色)만이 육체적인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고 受,想,行,識이 생물학적인 것과도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들은 명상을 통한 정신과 더욱 연결되기에 개별적 체험이 다른 유(類)에게 있어서도 다른 것인가?

<논의.2>. 부처는 영적 완성에 이르기 위해 세 겁(劫)하고도 많은 시간이 흘렸다고 한다. 또한 그 세월을 미래의 붓다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덕**을 닦아나갔다고 한다. 또한 그가 말한 전생에

치른 수많은 자기희생의 대가는 개인의 덕과 개인의 구원에만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그가 고행을 통한 '어떤 덕"으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타자와 사회구원까지 가능한 부분은 없는 것인가? 가능하다면 불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타자와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며, 아니라면 처음부터 깨달음의 뒤에도 사회구원은 요원한 것이었는가?

<논의.3>. 집(執)을 멸하기 위한 방법으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하고 있다. 즉 바른 기준이란 무엇인가? 믿음보다 이성을 중시여기는 불교는 그것이 인간 이성에 기초한 작업의 결과인가? 아니면 시대정신에 따라 보편적으로 느끼는 옳음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하여 正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불변하는 옳음이 있다는 것일까?

무아를 깨닫는 자가 "체험하는 그 자체가 존재"라고 보는 불가에서는 시간에 따라 달리 체험되어지는 윤리나 도덕(正)이 혹 定이라고 말하는가?

(2)

제4강 불교 모두의 공통된 기반

철학과 02학번 K 학생

[Review]

불교의 중도(中道)

1. 수행적 측면

고(苦) / 락(樂) 간의 중도

Buddha는 고행주의(asceticism)의 끝에 Nirvana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苦와 樂의 그 중간에서 Nirvana에 도달한다.

2. 실재(윤회)에 대한 측면

단(斷) / 상(常) 간의 중도

Buddha는 斷과 常의 중간에서 연기(緣起)를 이야기한다. 우파니샤드의 범아일여(梵我一如)와 단멸론의 中道에서 앞의 것과 뒤의 것의 연관성을 연기(緣起)로 설명한다. A가 B가 된 것은 연기적인 변화에 의한 것으로, 전 찰라는 현 찰라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Buddha가 말하는 연기는 공간적 계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계기, 그것도 종교적인 시간의 계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동아시아적인 불교의 전통에서 연기는 공간적인 사물들의 인과성으로 이해되기 쉬운데, 초기불교의 그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3. 자유의지에 관련된 측면

우연론 / 결정론 간의 중도

우연론에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원인을 두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이미 결정되어진 어떤 원인이 현재의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이론은 결정론이다. 결정론은 Pre-programed / Pre-determined 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진 대로 움직인다. 과거의 결정론은 신(神)에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과학에 의한 결정론으로 점차 옮겨지기도 하였다.

Buddha는 이 둘의 중도에서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기도 하면서 현재는 동시에 미래의 원인이 된다고 깨달았다. 현재가 미래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깨달음 속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설 여지가 있다. 인간은 현재적 존재로서 지금 내가 과거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일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불교의 자유의지가 기독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의문을 품었다. 그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불교과 기독교에서 언급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본질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불교의 그것은 도덕적 인과율에 입각해 이해하고, 기독교의 그것은 성서해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기독교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점에서, 단순히 해석상의 문제나 도덕적 인과율에 관한 문제 이상의, 종교적이거나, 존재론적인 어떤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무지함으로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

[불교 모두의 공통된 기반]

여기서 '공통된' 이라는 어휘를 선택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과거의 많은 일본학자들은 불교의 '근본적' 인 어떤 것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으나, 불교의 '근본적인'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불교에서 그 역사를 고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인도인들에게 있어 역사적 연대는 관심 밖의 일이었고, 이것은 그 땅의 불교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불교도들이 믿기에, 진리(법)에는 역사가 없다. 변하는 것은 다만 외부적 환경 뿐-. 더욱이 영적, 종교적 관점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결코 역사책 속에 있지 않다.

다 같이 '불교' 라고 칭해지지만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모습은 상이한 양상을 띄고 있기도 하다. 불교의 본 모습을 위해 살피기 위해 다가가다가도 다양한 논의들과 양식, 심지어는 서로 모순되기까지도 한 가르침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다. 그 중에 공통된 것들을

발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래된 것이 근본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공통되었다 하여 그것이 반드시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상, 불교 본래의 가르침이 어떠했던가를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대한 양식의 각기 다른 불교들이 '불교' 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그들 나름의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통된 기반이 되는 가르침은 대략 아래와 같다.

. 오온(五蘊)

. 사성제(四聖諦)

. 12연기(十二緣起)

위에 제시된 공통된 기반 역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가르침의 진의(眞意)는 같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한다.

◎오온(五蘊)이란 무엇인가

오온(五蘊)은 色(색), 受(수), 想(상), 行(행), 識(식)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는 곧, 인간의 경험을 분석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재란 곧 경험, 경험이 곧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분석이란 해체(de-construct)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色(색)은 육체, 즉 물질적 요소를 가리키고 나머지 네 개는 인간의 정신, 더 정확히 말해 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色(색)

(rupa, color) 色은 육체, 곧 물질적 요소(material form)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물질성 그 자체가 아니라 육체에 해당하는 감각기관 [1. 眼(안) 2. 耳(이) 3. 鼻(비) 4. 舌(설) 5. 身(신)] 에 의해 일어나는 감각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로 옮기자면 眼(안)은 '눈' 에 해당하는 'eye'가 아니라 '보는 것' 에 해당하는 'seeing' 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또 하나 주의해야할 것은 여기서는 보는 작용과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보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受(수)

(feeling) 受는 느낌으로 번역되어진다. 여기서의 느낌은 외부사물과 접촉했을 때 자동적으로 내

게 주어지는 것이다. 나의 의식작용에 의한 판단으로 결정되어지는 종류의 느낌이 아니라 의식화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느낌에 대한 것이다.[Biological responds]
여기에서 욕망은 시작된다. 외부사물과 접촉했을 때에, [좋다 / 나쁘다 /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하는 느낌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인간의 욕망이 발생하게 된다. 좋은 것을 취하고 싶고 나쁜 것을 피하고 싶은 것에서부터 욕망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想(상)

(perception) 이것은 표상(表象 / samjna) 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지각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 지각은 그것이 그것임을 인지하는 것이지 동시에 그것을 다른 어떤 것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청색의 푸르름을 그 푸르름 자체로 인지하는 것이 想이요, 여기서 이 푸르름을 붉음과 같은 다른 색과 구분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識인 것이다.

*行(행)

(mental formation) 行은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본래 산스크리트어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smaskara 로 그대로 번역하면 '형성'이라는 뜻에 더 가깝게 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行이라는 단어로 한역되었다. 이것은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行이라 한역한 것이 적절하다.

識(식)

이것은 판단, 내지는 요별(了別) 작용이라고 보면 된다. 위의 想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識과의 차이점이 언급되었을 것이다. 요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 앎과 동시에 그것을 식별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작용들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업'이다. 색(色)으로부터 식(識)에 이르는 이 흐름은 어떠한 단계나 순서로 이해하기 보다는 거친 것으로부터 섬세한 것에 이르는 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덧붙이기
이 다섯가지 무더기(五蘊)은 개별성을 구성하는 재료들이다. 이 다섯 쌓임의 위 또는 그 너머에 <자아가 존재한다>는 가정으로부터 개별성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개별성이라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진다. 개별성은 근거 없는 상상의 소산이다, <다섯 무더기>로부터 멋대로 만들어낸 개별성이 사그라질 때 불교의 목표인 니르바나(Nirvana)가 성취된다.

고오빈다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커다란 사랑과 예감에 이끌려 친구의 말을 좇아 그에게 가까이 몸을 굽혀 이마에 입술을 대었다. 그때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싯달타의 야릇한 말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시간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열반과 윤회를 하나로 생각하려고 헛되이 마지못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친구의 말을 대한 약간의 경멸의 마음과 친구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친구 싯달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다른 얼굴들이 보였다. 수많은 얼굴의 긴 행렬, 강물처럼 흐르는 수백 수천의 얼굴들이 한결같이 나타났는가 하면 사라지는 것이었고, 그러면서도 역시 모두가 동시에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얼굴들은 모두가 끊임없이 변하여 새로운 얼굴이 되는 것이었고, 또 그 얼굴들은 역시 모두가 싯달타의 얼굴이었다. 그는 물고기의 얼굴을 보았다. 무한히 고통스럽게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한 마리의 잉어, 찢어진 눈을 하고 있는 죽어가는 물고기의 얼굴을 보았다 - 그는 주름 투성이로 잔뜩 찌푸리고 우는 새빨간 갓난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 그는 한 살인자의 얼굴은, 그 살인자가 단도로 사람을 찌르는 모습을 보았다 - 그는 그와 동시에 이 살인자가 결박당하여 꿇어앉은 채 형리의 내리치는 칼에 목이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 그는 광적인 사랑의 교전(交戰)의 자세를 하고 있는 벌거숭이 남녀의 몸뚱어리를 보았다 - 그는 말없이 싸늘하게, 허무한 모습으로 사지를 뻗고 있는 시체를 보았다 - 그는 동물들의 머리를 보았다. 산돼지의 머리, 악어의 머리, 코끼리의 머리, 황소의 머리, 새들의 머리들 - 그는 신들을 보았다. 크리슈나 신과 아그니 신을 보았다 - 그는 이 모든 형상과 얼굴들이 서로 천태만상으로 뒤얽혀 서로 다른 것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미워하고 파괴하며, 새로이 낳는 것을 보았다. 그 하나하나는 죽음을 원하는 존재요, 무상함을 심히 고통스럽게 고백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죽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변화할 뿐이며 끊임없이 새로이 태어나면 끊임없이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한 얼굴과 다른 얼굴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버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 그리고 이 모든 형상과 얼굴들은 쉬며 흐르며 생성되며 헤엄치며 뒤엉켜 흘러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로 끊임없이 엷은 무엇이, 무형(無形)의 무엇이 그러면서도 실재하는 무엇이 뒤덮여 있었다. 엷은 유리나 얼음처럼, 투명한 막처럼, 껍질처럼, 또는 액체로 된 틀이나 가면(假面)처럼. 그 가면은 미소짓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가면이 곧 싯달타의 미소지은 얼굴이었다. 바로 그 순간 고오빈다가 입술을 대고 있는 싯달타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또한 고오빈다는 보았다. 이 흐르는 형체 위의 가면의 미소를, 단일의 미소를, 수천의 태어남과 죽음을 동시적인 것으로 보는 미소를.

이 부분은 개별성이 사라진 무아(無我)의 상태일 때 Nirvana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실었다. 여기서 주인공 싯달타는 친구 고오빈다를 말로 이해시키지 않는다. 니르바나를 성취한 그의 가르침은 언어 너머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언어를 넘어서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인간의 언어는 너무나 한정되어있어, 그 스스로의 존재물음에 대한 답변조차 언어의 굴레 안에서 내리지 못하게끔 되어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언어의 영역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불교의 가르침 역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일까.

*질문 하나 더

오온(五蘊)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불교에서 동물은 그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색(色)에서부터 적어도 행(行)에 이르기까지는 그 경험이란 것이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업에 의해서 금수가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일은 분명 금수와 인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서구적인 의미의 차이와는 분명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